

훈민정음의 가치

지난 10월 9일은 훈민정음이 반포(1446년 세종 28년)된 지 575돌이 되는 날이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 오늘날의 국가 발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새 언어를 통해 나라를 발전시킬 목적 하에 주도면밀(周到綿密)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 세종이 행한 일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세종 시대에 전라도의 한 농민이 제 아비를 해친 일이 발생했다. 세종에 이에 충격을 받아 백성들이 충효를 알고 실천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효자와 열녀 이야기를 언문(諺文)으로 번역해 민간에 널리 보급하라고 명했다. 이때가 세종 26년(1444년), 훈민정음을 창제한 직후였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어린 세자의 공부와 종친들의 교육에도 활용됐다.

한편 세종은 공문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관리들에게 훈민정음을 익히게 해 행정 업무를 바르게 하고자 했다. 세종 29년(1447년)에는 각 관아의 하급 관리를 뽑는 시험 과목에 훈민정음을 포함시키라고 명을 내렸다. 당시 한문 문장에 익숙하지 않은 관리들이 공문서에 오류를 범해 백성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을 시험 과목으로 넣은 것은 한자 지식이 적은 관리들이 쉬운 문자를 익혀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 하나는 한자음을 정리해 한문 향유 계층인 사대부들의 공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 중국의 한자음은 본토에서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게 많았는데 이를 바르게 표기할 방법이 없어 혼란이 적잖았다. 훈민정음은 한자음을 적을 수 있는 문자였다.

그 무렵 조선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한 《동국정운(東國正韻)》도 편찬했다. 정조 7년(1783년) 실록에는 훈민정음으로 변해한 한자음을 공부한 뒤 사대부들이 역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중국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쓰여 있다.

언어 정책은 왕이 주도한 개혁이었지만 각 계층의 어려움을 살핀 민주주의적 안목이 깔려 있었다. 그 점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 『좋은 생각』, 정주리(동서울대 교수)